

中東石油의 어제와 오늘 (上)

—이코노미스트誌에서—

中東지역은 自由世界 석유매장량의 거의 절반을 보유하고 있다.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 에미레이트가 10년전 서방석유회사들로부터 석유통제권을 인수한 이래 中東지역은 끊임없이 세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70년대와 같이 가격인상을 하는 대신 OPEC 산유국들은 이란·이라크 전쟁과 석유공급과잉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문제는 역시 그들이 풍부한 原油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귀착된다고 할 것이다.

70년대는 아랍 및 OPEC 산유국들이 석유상황을 근본적으로 뒤집어 놓은 시기이다. 70년대 초반 해도 엑슨, 모빌, 소칼, BP, 셸, 텍사코, 걸프등 7대 석유메이저는 自由世界 석유 매장량의 약 3분의 2를 장악하고 있었으나, 70년대 말에는 5분의 1로 축소되었고, 이 대부분은 產油國, 즉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 에미레이트로 넘어가게 되었다.

현재의 공급과잉 현상은 中東지역 석유의 위력을 크게 약화시켰으며, 이란·이라크 전쟁으로 페르시아만 상에서 산발적인 유조선 공격이 있었음에도 70년대와 같은 석유가격 인상 내지 폭등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石油의 공급과잉 현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석유소비국들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즉 어떻게 하면 산유국들이 油價 인상으로 이익이 증가하는 반면 세계경제 침체에 손해를 본다는 점을 그들에게 주지시키느냐는 것이다.

中東石油의 위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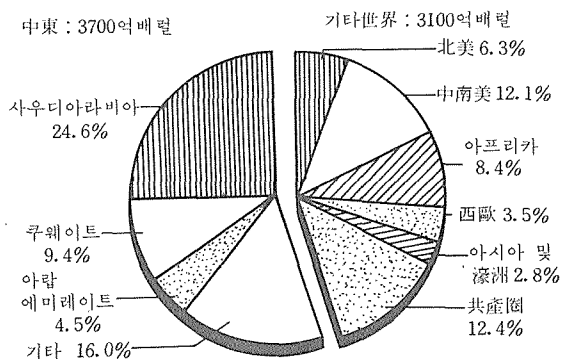
현재의 석유공급 과잉 현상은 앞으로 10년 정도가 지나면 해소될 것이지만, 中東石油의 위력은 쇠퇴는 커

녕 오히려 강대해 질 것이다. 매장량의 순위에 따르면, 사우디와 쿠웨이트가 각각 1, 2위를 마크하고 있다. 사우디의 가체 매장량은 1천620억 배럴로서 美国과 英国 매장량 합계의 4배에 해당하며, 쿠웨이트는 670억 배럴로 서구 최대 石油會社인 엑슨이 보유하고 있는 매장량의 10배 정도가 된다. 또한 아랍 에미레이트의 매장량은 美国의 매장량과 거의 비슷한 300억 배럴 정도이다.

현재 中東 산유국들과 소비자들간의 불화의 간격이 서서히 메워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中東 산유국 국민들은 석유소비국과의 틈을 의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視角은 원유·석유제품·석유화학 제품 등의 판매를 여하히 확보하여 그들 경제를 성장시키느냐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산유국들은 1970년대 石油危機 때에는 서방측과 대치상태에 있었으나, 지금은 정치적으로 서방에 경도되어 있다. 서방세력이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것에 강력히

世界石油 확인매장량 (83년말 현재)



반대하고 자국의 독립성 유지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그들로서는 서방시장이 共産圈 국가보다는 수익성은 말할 것도 없고, 친화성이 월등이 강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페르시아灣에서의 유조선 공격행위는 정치적인 공동의 이해를 확인시켰다. 이는 中東산유국과 서방측 석유회사들에게 모두 해로운 것으로 양측의 우려는 공통성을 갖게 되었다. 잘하면 이러한 사태에서 中東 산유국들과 서방 각국들은 석유수송로를 보호하기 위해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을 배우게 될지도 모른다.

石油收入의 감소

中東산유국들에게는 유감스럽게도 국제석유시장은 매우 위태로운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70년대와는 달리 석유수요는 가격을 인상하게 되면 이에 대응, 대폭 떨어질 것이다. 自由世界 석유소비량은 1977년 하루 5,400만배럴에서 지난 해에는 4,400만배럴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앞으로 석유수요가 연평균 1-2% 늘어날 것으로 내다 보고 있으나, 1979-80년의 교환을 거울삼아 과거에 가격인상으로 큰 고통을 겪은 산유국들이 가격 인상으로 나갈 수 없는 일이다. 아마니 石油相은 실제수요를 무시하고 가격을 인상한 代價를 지금 치루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오만, 카타르등을 포함한 1983년 中東지역의 산유량은 1978년도에 비해 40%가 떨어진 하루 800만배럴 수준이 되었다. 이 지역의 산유량은 自由世界 총산유량의 3분의 1에서 5분의 1로 축소되었다. 이에 따른 석유수입도 상당히 떨어져 사우디의 경우, 1981년 최고 1,020억 달러에서 지난 해 93억달러로 4% 이상 줄어들었으며, 아랍에미레이트 역시 80년 180억달러에서 110억달러로 감소되었다. 이와 같이 石油收入이 떨어진 것은 이들이 석유수요를 안정시키려고 산유량을 축소 조정한 것이 주 원인이다. 中東지역의 4대 산유국, 즉 사우디,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는 타산유국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1983년 3월 油價인하를 강행, OPEC의 기준유가는 배럴당 34달러에서 29달러로 인하되었다. 지난 7월 10일 비인에서 개최됐던 OPEC 총회에서도 인플레이로 石油의 실질가치가 부식되더라도 향후 수년간 油價를 유지함으로써 中東지역 경제의 생명선인 석유수요를 안정시키려는 결의가 재천명 되었다.

石油에 의존하고 있는 이 지역 국가들의 경제개발은

석유소비자들의 경제와도 밀접히 연결되어 있어서 이에 따른 이해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것도 그들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발전에 대한 전망은 그렇게 낙관적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中東 산유국들의 지도자들은 석유매장량을 관리하고 석유문제를 전담하기 위해 国營石油會社를 설립하고 석유의존경제를 다양화 시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石油産業을 하류부문으로 확장하고, 石油化學과 같은 신규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도자들은 기업의 생존 번영을 위해 제품수출의 필요성을 통감한 나머지 해외의 마케팅망을 구축하는데까지 손을 뻗었다. 해외 마케팅망 설립은 極東석유정책에 영향을 받는 석유시장에 中東이 개입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製品판매에 진출한 産油国

현재는 쿠웨이트만이 石油를 직접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는데, 1983년 걸프社로부터 매입한 유럽의 주유소를 비롯한 마케팅망을 통해 산유량의 10분의 1을 판매하고 있다. 사우디,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국의 정제능력은 原油생산량의 4분의 1을 밀돌고 있으나, 신규 정유공장과 석유화학 공장들이 中東지역에서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폭 늘어날 것이다.

사우디 아라비아와 쿠웨이트 양국은 해외의 신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온갖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986년말에 가면 사우디 단독으로도 세계의 기본석유 화학제품의 4~5%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된다.

中東 산유국들의 石油製品 및 석유화학제품이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인데, 그것은 이들 제품의 초과공급 능력 시설 때문이다. 그렇지만 中東 산유국들이 이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공급자가 되고자 하는 시도가 일단 달성된다면 선진국들은 장벽을 쌓아 이들의 진입을 막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영해야 할 것이다. 石油化學분야에서는 中東산유국들은 풍부하고 저렴한 천연가스 덕택으로 개발자들에게 어느 누구보다도 값싸게 제품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전망이 밝다. 그러나 精油分野는 사정이 좀 다르다. 왜냐하면 현지 정유업자들도 서방 石油社들과 똑 같은 원유가격, 즉 정부 판매가격으로 原油를 매입해야 하고 수송비용에 있어서도 석유제품은 原油보다 코스트가

높기 때문이다.

中東 산유국들과 석유소비국들간의 제반문제점을 해결하면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中東 산유국들은 야심적인 경제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반면, 소비국들은 안정적인 석유공급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中東 산유국들의 경제는 세계경제에 의존하고 있어서 무모한 가격인상을 꺼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산유국들과 소비국들간의 문제점 해결이 실패한다면, 다시 말해 비타협 근시안적인 보호무역주의 등을 選好한다면 양측 모두 어려움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세계경제의 안정과 국제석유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소비국·산유국 및 석유회사등 모두가 협조를 바탕으로 石油産業을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

페르시아灣의 격랑

지난 5월부터 페르시아灣 해상에 거친 파도를 일으켜 온 유조선에 대한 미사일 공격은 조심스레 싹트고 있는 서방 국가들의 경제회복은 물론 中東諸國의 경제개발계획까지 말살시키려는 심각한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 이제 이란·이라크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은 油價의 안정 및 경제성장의 지속이라는 문제와 직결되면서 페르시아灣 수평선 너머 대다수 국가들의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 무분별한 전쟁의 불을 끄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

페르시아灣 사태가 한층 심각해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 5월 하순 이라크가 이란의 하르그 석유타미널 근해를 향해하던 유조선들을 공격하자 이란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라크의 제정지원국인 쿠웨이트와 사우디 아라비아 뱅커들을 공격한 사태에서 비롯되었다. 6월 들어서 사우디機들이 영공을 침범한 이란 전투기들과 공중전을 벌여 그중 몇대를 격추시키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 뒤로도 유조선 공격사건은 잇달아 일어났고, 이러한 악순환속에 中東지역 전체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고 국제적인 불안사태로 비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中東諸國의 통치자들은 이러한 전쟁악화의 위협에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 1981년 사우디, 쿠웨이트, UAE, 오만, 카타르, 바레인등 6개국은 페르시아灣 협력회의(GCC)를 결성하고 상호방위와 경제협력을 다짐했다. GCC는 그뒤 페르시아灣 방위문제에서 美

國의 역할에 대해 견해가 엇갈리고 있기는 하나, 유조선 공격사태에 처해 대응자세를 합일화하는 주도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라크를 지지한다는 노선과 안정적 석유수출의 보장이라는 양자의 사이에서 미묘한 입장을 처하기도 했다.

GCC 국가들의 입장은 정말로 난처한 것이었다.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은 이란이 페르시아灣을 경유하는 이라크의 석유수출을 방해하는 한 유조선 공격을 계속할 것이라고 경고해 오고 있고, 이란은 이라크가 유조선을 공격할 경우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며, 아울러 호르무즈해협도 봉쇄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이란이 이라크의 페르시아灣 석유수출로를 봉쇄함에 따라 이라크의 石油 생산량은 OPEC 부과 할당량인 하루 120만배럴의 3분지 2에 불과한 80만배럴 수준으로 격감했으며, 이로 인해 이라크는 戰時經濟를 꾸려나가는데 큰 난관에 봉착해 있어 이라크로서는 이를 방관만 하고 있을 수도 없는 입장이다.

페르시아灣사태와 價格전망

실제로 이란이 호르무즈해협 봉쇄의 위협을 실행에 옮길 만한 군사적 능력이냐 그럴 의사가 있는 것으로 믿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러나 페르시아灣 해상을 항해하는 유조선들이나 GCC 국가들은 이란의 공격에 대해 거의 속수무책의 상황에 놓여 있다. 예를 들어 사우디의 石油선적 총본산인 라스 타누라는 이란 해안에서 불과 150마일 거리인가 하면, 쿠웨이트 국경은 전투기가 빈출하는 이라크의 바스라 인근에 대치중인 양국군 진지에서 40마일 거리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란의 전투기들이 날아와 폭격을 가할 경우, 이에 대응할 준비태세를 갖추기에는 너무나 가까운 거리에 있다.

페르시아灣 전쟁이 확대될 경우, 그 고통은 소비국들은 물론 이 지역 產油國들 모두에게 미친다. 현재로서는 사우디와 이라크만이 페르시아灣 항로를 피해 석유수송을 계속할 수 있다. 이라크는 하루 송유능력 80만 배럴(곧 120만배럴로 확장 예정)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터키를 지나 地中海로 송유할 수 있으며, 사우디는 東部油田에서 홍해의 안부항에 이르는 180만배럴의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다. 페르시아灣의 석유 수송이 단절될 경우, 다른 OPEC 산유국들이 초과생산한다고 해도 自由世界는 하루 소비량의 5%가 넘는 200만 배럴의 공급부족을 겪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최악의 경우 사

우디 마저 생산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 공급부족량은 약 400만배럴 규모로 커지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론상으로 페르시아灣의 석유수송로가 막힐 경우, 즉각적인 영향은 소비국들 보다도 中東 産油国들에 대한 타격이 더 크다는 것이다. 中東산유국들은 제한된 석유비축 시설로 인해 발전용 플랜트나 담수화공장을 가동시키는데 필요한 수반가스의 생산조차 문제가 된다. 한편 소비국들로서는 즉각적으로 터질지도 모르는 혼란 사태를 막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 소비국들의 석유비축량은 하루 300만배럴의 공급감소에 300일을 견딜만한 충분한 수준이다. 그러나 1979년의 이란回敎革命 직후와 같은 石油사재기 광란사태가 재연될 경우에 혼란사태는 견잡을 수 없게 된다.

페르시아灣 항로의 폐쇄상태가 몇개월동안 계속될 경우 油價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오를 수 밖에는 없다. 서방 선진국들은 석유공급이 7% 부족하게 되면 공동배분제를 실시해서 수요도 같은 폭으로 수축시키기로 國際에너지 機構(IEA)를 통해 약속하고 있다. 물론 油價 앙등의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油價가 어느 수준까지 오를 경우 공동배분제를 쓰느냐 하는 문제가 선이 그어지지 않은데다가 소비국마다 페르시아灣의 존도가 다르다는 점이 공동배분제 실시에 난제로 남아 있다. 日本은 석유소비량의 절반 이상을 페르시아灣에서 가져오는가 하면, 西歐는 4분의 1, 그리고 최대 석유소비시장인 美國은 10분의 1의 석유수입을 페르시아灣에 의존하고 있어 각국이 큰 차를 나타내고 있다.

주요 先進国의 대응

지난 6월 西方지도자들은 런던에서 열린 先進国 경제정상회담에서 석유위기의 대처방안을 진지하게 토의한 바 있다. 그러나 그들이 원치 않는 것이 꼭 한가지가 있다. 페르시아灣 전쟁에 끼어드는 일이다.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은 서방측이 전쟁에 개입할 경우 이라크가 득을 본다는 계산하에 이란에 대한 공격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일각에서는 생각하고 있다. 이란에 대한 공격을 강화할 경우 이란측으로부터 보복공격이 뒤따를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서방측의 개입은 불가피해 질 것이라는 계산이다. 그러나 서방강국들은 예견할 수 없는 태풍속으로 빨려들기는 원치 않고 있다. 대규모의 해군력을 페르시아灣으로 투입하는 경우, 특히 길

목이 좁은 페르시아灣의 수로는 어떤 선박이건 공격해오는 전폭기들의 목표가 되기 십상이다.

GCC국가들은 美國, 英國, 프랑스등 서방의 해군병력이 현재 순항활동을 펴고 있는 호르무즈해협 바로 외곽해상에 계속 머물러 주기를 바라는 입장이다. 이미 혼란스러워진 사태에 더 큰 분규를 불러 일으키지 말자는 생각에서다. 또 서방측도 이러한 GCC 국가들의 뜻을 잘 받아 들이고 있다. 레이건 美 대통령은 美軍을 페르시아灣 내로 파견하는 것은 항로 개방이 불가피할 경우에 한한다고 선을 긋고 있으며, 그것도 유럽 盟邦들이 뜻을 같이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천명하고 있다.

GCC 국가들은 현재의 石油市場 안정상태하에서 조차도 석유공급 안정보장에 대한 우려가 심해질 경우 고객들과의 새로운 장기 공급계약의 지속적 추진이 장애를 받게 될 것이란 점을 잘 알고 있다. 이에 따라 GCC 국가들은 지난 5월 하순 이란이 사우디와 쿠웨이트 유조선들을 공격한 이후에도 石油가 여전히 페르시아灣을 통해서 잘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해 왔다.

GCC국들의 대응

△유조선의 우회항해 : 이라크와 이란이 선포한 페르시아灣 북동해상의 전쟁수역을 피해 훨씬 남서쪽 해상으로 새 항로를 설정했다. 물론 이 항로에서도 이란측의 공격을 받기는 했으나, GCC국들의 해안과 근접해 있어 대공방어가 보다 용이하다는 이점을 살렸다.

△해협의확서의 선적 : 쿠웨이트는 신경과민의 유조선주들을 달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 밖의 오만해상에서 보다 안전하게 선적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제의했다. 해협밖까지의 석유수송은 쿠웨이트자체가 서비스한다는 것이다.

△軍事장비의 확보 : 사우디는 자위력강화를 위해 美國으로부터 스텔링 地対空 미사일을 사들였으며, 쿠웨이트도 미사일 구입을 원했으나, 미사일이 아랍 테러리스트들의 수중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이스라엘의 로비활동으로 실패했다. 사우디는 스텔링 미사일 외에도 AWACS기, 공중급유 제트탱커등의 美製 군사장비를 비치해 놓고 있다.

△外交노력의 강화 : GCC 외교관들은 이란에 대한 국제적 압력을 유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여러 국제기구에서 로비활동을 벌여 이란이 공해상에서 유조선을

공격하는 것을 비난하는 결의를 채택하도록 작용해 왔다. 아랍연맹과 국제연합에서는 이에 성공을 거두었다. 그 뿐만 아니라 소비국들에는 이란산 原油 구매를 줄이도록 증용해 왔으며, 日本의 경우 한동안 이란산 原油의 구매량이 절반 이하로 격감하기도 했다.

페르시아灣 해상의 잇달은 유조선 피격 사태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GCC 국가들이 이란·이라크 전쟁의 확대를 잘 저지해 주리라는 희망을 가져도 될 것 같다. 그들은 수십년 동안 상대적으로 강한 이웃나라들에 둘러 싸인 채 혼란속에서 살아남는 지혜를 익혔으며, 1970년대의 경험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이로운지를 잘 터득시켜 주고 있다. 中東지역의 통치자들은 70년대에 石油로 벌어들인 부를 모두 걸고 싹트워온 경제개발의 꿈이 자칫하면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리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70년대의 大變革

1972년 이전의 中東石油은 배타적인 신사클럽과 아주 흡사했다. 서방 석유 메이저들은 콘소시엄을 형성하여 이 지역의 석유 매장량은 물론, 생산까지도 수중에 넣어 완전 장악하고 있었다. 이 콘소시엄은 참여자들에게는 풍부한 原油를 공급하면서, 분열을 획책하는 신참자들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동시에 회원사간에는 상호감시 체제를 유도하였던 것이다. 참가 회원사들이 식민지 근성과 경쟁을 저해하는 결점이 있었지만, 이 콘소시엄은 강력한 리더쉽을 발휘하여 石油産業과 석유시장의 안정유지에 지대한 역할을 했음을 간과할 수 없다.

石油産業의 기본적인 불안정성은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소위 「Hog Cycle」에서 유래한다. 즉 새로운 석유 매장량이 발견되어 생산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수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는데, 석유소비자들이 석유다소모 자동차와 공장시설들을 에너지 절약적인 새로운 것으로 代替하기에는 더 장구한 시간이 걸리므로 이로 인한 갭 때문에 石油産業은 불안해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수요가 폭등하고 이에 따른 油價가 상승되면 석유회사들은 앞을 다투어 석유생산에 전념하게 되지만, 이렇게 해서 새로운 油井이 생산단계에 오면 高油價 현상은 수요를 감축, 수요를 바닥으로 밀어내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가격은 떨어지고 탐사활동은 중지하여 어떤 생산업자는 빈털털이로 변신하기도 하며, 또 다시 가격과 수요가 상승하는 단계에 진입, 이러한 과정이 순환되게 된다.

콘소시엄들은 지금까지 시장에서의 불안요인을 최소화하여 왔는데 첫째, 세계에 산재에 있는 석유매장량의 개발속도를 조절하고, 둘째로 메이저들로 하여금 행동을 자제하도록 규제함으로써 과당경쟁과 이것이 가격에 미치는 효과를 완화시켰으며 셋째로, 메이저들에게 금융·마케팅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공급과잉시에는 가격을 인상하고 공급부족시에는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격변현상을 어느 정도 통제했었다.

이와 같은 콘소시엄 중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것이 사우디의 아랍코였다. 그 구성을 보면 소칼(30%), 텍사코(30%), 엑슨(30%), 모빌(10%)의 美国系 석유 메이저들이며, 이들이 사우디 아라비아의 석유를 거의 전부 통제했으며, 사우디를 제외한 여타中東지역도 이들 콘소시엄의 영향력 밑에 있었다. 쿠웨이트의 KOC (Kuwait Oil Company)도 BP(50%), 걸프(50%)가 공동으로 참여한 콘소시엄으로 동국의 석유를 장악했으며, UAE에는 두개의 콘소시엄이 있는데, 육상원유의 탐사개발을 담당하는 Abu Dhabi Petroleum Company와 연안해에서 조업을 하는 Abu Dhabi Marine이다. 전자의 구성은 BP, CFP, 모빌 및 셸이며, 후자는 BP와 CFP가 참여하고 있었다.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야마니 石油相의 전임자인 압둘라·타리키를 포함한 OPEC 강경론자들은 메이저들이 보유·통제하고 있는 石油資源을 완전 국유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야마니 石油相은 1971년 OPEC산유국들을 설득하여 국유화 이전에 콘소시엄이 보유하고 있는 석유이권의 20%를 매입할 것을 종용했다. 그는 즉각적인 国有化조치는 석유시장에서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메이저들에 대항하는 것보다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산유국의 매입요청에 대해 석유 메이저들은 어리석게도 산유국과 대항하여 패배의 고배를 마셨다. 이에 따라 OPEC의 세력은 증대되고, 石油收入이 늘어남에 따라 국유화의 불가피성을 느꼈을 때는 石油産業은 메이저의 통제에서 이미 벗어난 상태였었다.

石油市場의 환경변화

1973년 OPEC의 석유 생산량은 대폭 신장되어 1960년 세계 원유생산량의 불과 5분의 2에서 3분의 2로 정중 뛰어 올랐다. 따라서 自由世界 에너지 공급량이 1960년 43%에서 56%까지 증대되자, 석유의 공급부족

보다 오히려 과잉에 더욱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던 석유회사들까지도, 연평균 8%라는 수요 증가율을 무루어 보아 머지 않아 공급문제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1983년에 접어들면서 OPEC의 산유량은 또 다시 세계 전체의 5분의 2 수준으로 떨어져 自由世界 에너지 수요의 절반정도만 공급하게 되었으며, 석유소비는 1979년 이래 연평균 3% 비율로 감소하여 오고 있다. 오일맨들은 1970년대를 석유시장에서 OPEC의 통제력이 급격히 변동한 시기로 입을 모으고 있다. 이 밖에도 다음과 같은 석유환경에 변화를 가져왔다.

● 石油会社

7대 메이저(엑슨, 로얄더치 셸, 모빌, 텍사코, BP, 소칼, 걸프)의 보유 석유매장량은 自由世界 전체의 3분의 2에서 5분의 1 이하로 급감했으며, 石油製品에 대한 시장점유율도 5분의 3에서 5분의 2 수준으로 잠식되었다.

● 原油需要

석유수요는 GNP 수준과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는 전통적 개념이 현금에 와서는 점차적으로 흐려지고 있다. 1983년 美国의 실질 GNP는 1973년에 비해 22% 성장했으나, 석유소비는 10년전에 비해 13%가 감소했다. 아무도 에너지 소비량과 GNP 성장과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에너지 절약활동만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경쟁관계

1970년대 이전에는 메이저들이 그들의 경쟁회사들에게 그들이 생산한 原油를 공급하는 일이 흔하게 있었으나, 산유국들에 의한 석유자원 국유화 조치가 이루어진 오늘 날에는 그들과 경쟁관계를 가지고 OPEC 산유국의 국영석유회사들로부터 原油를 구매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으로 돌변했다.

● 石油市場

1973년 석유회사간의 原油의 이동은 거의 95% 이상 장기 공급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나, 10년이 지난 1983년에 이르러서는 많은 석유회사들이 장기공급 계약 형태를 선호하지 않거나 필요성을 거의 느끼지 않는 추세로 변해 현재에는 現物市場 거래량이 5분의 2 정도로 늘어났다.

● 非OPEC 산유국의 산유량

1970년대에 美国의 원유생산량은 감소되었지만 北海

에서의 원유생산분이 일어나 1972-82년 기간중 西歐의 산유량은 평균 21% 증가되어 1983년에 들어 北海 산유량은 하루 350만배럴까지 늘어났다. 멕시코의 산유량도 연평균 20% 증가세를 보여, 1983년 하루 300만배럴 수준에 육박했다. 이리하여 1973-1983년 기간중 非 OPEC의 산유량은 35% 신장, 하루 2,300만 배럴 수준에 달했다.

● 석유수입

1973년 美国의 석유수입량은 급등하기 시작, 동년 하루 630만배럴(소비량의 37%)이었던 것이 1977년에는 870만배럴(소비량의 48%)로 대폭 신장되었다. 그러던 것이 최근에 들어 당시의 상승세와 비슷하게 수입량은 줄어들어 지난 해에는 단 490만배럴(소비의 33%)로 격감하는 현상을 보였다. 西歐諸國도 1970년대의 석유부족사태를 교훈으로 삼아 계속적으로 석유수입량을 줄여, 1973년 하루 154만배럴에서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日本도 계속 원유수입량을 줄여 1973년 하루 550만배럴에서 지난 해에는 410만배럴 수준까지 줄었다.

● 石油製品의 수요

産業 및 가정에서 원유가격의 폭등에 대비,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반면 천연가스, 석탄 등의 석유 代替에너지로 에너지 형태로 바꾸었으나, 아직도 자동차, 항공기 등의 연료는 대체활동이 그리 활발치가 못하다. 그 결과 1973-83기간중 燃料油 수요는 연평균 8% 줄어들었으나, 휘발유의 경우는 1% 상승, 中間溜分の 경우는 0.4%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連產品인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정유업자에게 그리 좋은 것은 아니다.

● 各국 정부의 対策

1973년만 해도 에너지 절약이라는 기관을 보유한 나라는 하나도 없었으나, 1983년에는 거의 갖게 되는 상황으로 변했다. 1974년 선진제국은 OPEC에 대항하기 위해 IEA(국제 에너지기구)를 창설하게 되었다. 美国은 4억배럴의 戰略原油를 비축완료하고 석유 부족사태의 발발시 하루 200만배럴씩 방출하여 위기에 대처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1974-75년은 경기침체로 석유수요는 감소현상을 보였으나, 1979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다. 석유공급부족 때문에 온갖 고난을 겪은 석유소비국 정부와 석유회사들은 산유국들이 석유자원의 국유화 조치로 유발된 원유의 안정공급에 대한 겁을 메꾸기 위해 석유비축에 전념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석유의 공급과잉 사태가 발생하여 1982-83년에는 油價는 하락현상을 보였고, 도처에 초과 정제능력이 상존하게 되었다. 自由世界의 정제업자들은 석유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을 기대하여 1972년부터 1980년까지 31%나 되는 시설능력을 확대했고, 1979-80년 석유회사들은 原油의 안정공급을 도모하기 위해 대대적인 비축활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1982년에 이르러 그들은 비축이 불필요함을 느낀 나머지 비축원유를 대대적으로 시장에 방출, OPEC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부쳤다.

收益 높은 메이저의 上流部門

석유회사들은 1970년대를 石油産業을 분열시킨 시대라고 말하고 있다. 產油國들의 메이저들이 보유한 석유자원을 국유화했기 때문에 메이저와 산유국과는 물론 메이저 상호간의 관계까지도 소원하게 되었다. 산유국들은 새로운 규제와 稅制를 확립시킴으로써 석유회사들은 그들이 조업하는 여러 국가에 따라 서로 다른 조업형태와 전략을 선택하여 운영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또한 저수요에 따른 초과시설 능력 등으로 그들의 정유공장과 마아케팅 조직은 구조개편을 요하게 되었다.

石油 메이저들은 두가지 기본적인 문제점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키 위해 힘겹게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다시 말해 앞으로의 原油는 어디에서 가져올 것이며, 채산성은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이다. 전통적으로 석유메이저들이 막대한 이익을 가득한 분야는 상류부문, 즉 原油의 생산부문이었으며, 정제와 마아케팅 부문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아직도 석유회사들의 이익은 원유 생산부문에 있지만, 이들이 부심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상태가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이다. 10년전만 하더라도 7대 메이저들은 그들이 정제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원유를 생산했으나, 현재는 많은 매장량을 상실, 자체정제에 부족한 원유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해야 하는 형편에 있다. 더욱 근심스러운 것은 그들의 석유매장량이 현재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원유매장량이 고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自由世界만 하더라도 1980-1983년 기간중 원유 매장량이 12% 증가하여 5,850억배럴 수준에 달했지만, 메이저들은 그들이 생산하고 있는 양 만큼의 새로운 매장량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라는 데에 있다. 원유매장량의 증대는 대부분 OPEC 국가들에서이며, 그 중에서도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 UAE에서 현재

할 것으로 보인다. 보유 매장량이 고갈되어 가는데 대한 명백한 해결책의 하나로 정제부문과 마아케팅 부문에서 수익성을 올리는 방법을 들 수 있다. 모든 석유메이저들이 총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요원하기만 하다. 1980년 이래 自由世界의 정제능력은 10% 정도 삭감되었지만, 아직도 가동률은 70% 수준에 머물러 있다.

石油会社들이 정제능력은 축소조정했지만, 경질제품 收率을 높이기 위한 시설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이윤극대화 노선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크래킹시설 등을 통한 이익의 극대화는 저렴한 重質原油를 투입할 수 있는데서 찾을 수 있는데, 모든 석유회사들이 이와 같은 정제능력 고도화 투자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중질 원유 가격은 치솟게 되고, 아울러 경쟁의 이점이 침식되는 사태를 유발시켰다. 한편 마아케팅망의 개편, 즉 급성장하는 시장에 정유공장, 유통센터 및 주유소 시설들을 집중시킴으로써 이 부문에서도 경쟁의 이익이 침식되고 있다. 정제부문에서 이익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은 제품가격을 인상하든지 아니면 原油價格을 줄이는 방법인데, 전자는 현재의 공급과잉시장에서는 달성하기 불가능하고 후자는 메이저들의 자회사 정유공장에 원유를 저렴하게 공급하면 그만큼 본사 자체로는 손실을 면치 못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메이저의 장래진로

그들이 精製部門과 마아케팅 부문에 신경을 쓰고 있는 와중에서도 그들은 1990년대에 어디에서 原油를 확보하여 이들 부문에 공급할 것인가도 역시 결정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현재 그들 메이저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석유 매장량으로는 약 10년 정도 밖에 지탱할 수 없지만, 10년이면 이들이 새로운 油田을 발견·개발생산하기에 충분한 기간이다. 메이저들이 원유를 확보하기 위한 4개의 기본전략을 들어보면 첫째 스스로 석유 매장량을 발견 개발하는 것이고, 둘째 국제 석유 시장에 앞으로 물량이 많을 것으로 믿고 시장에서 구매하는 것, 셋째 타 석유회사를 흡수병합함으로써 매장량을 확보하는 방안과 끝으로 풍부한, 석유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中東산유국과 같은 같은 나라와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어떠한 석유회사도 이와 같은 代案중 어느 한 사업에 모든 것을 걸고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스스로 油田탐사를 선호할 것이나, 몇몇 회사들은 油田발견 탐사에 대규모 투자는 이익보다 비용이

□ 特別資料 □

더 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난 해 BP의 美国 자회사 Sohio社가 Beaufort 해의 Mukluk 유전 탐사에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개발투자를 감행했으나, 결국 이 유전은 乾孔으로 판명되어 막대한 투자손실을 입은 사실이 새롭다. 동사는 조차비용 및 기타비용을 포함한 탐수투입비용만 17억달러에 달했었다. 油價가 안정될 경우 유전탐사 비용은, 주식매입을 통한 타회사의 매장량 매입비용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현실이다.

현재 타석유회사의 석유 매장량을 웰스트리트에서 매입할 경우 배럴당 6-10달러로 사들일 수 있다. 금년 봄 이러한 현상이 활발히 일어나 텍사코는 게티를 101억달러에 매입했고, 소칼은 걸프를 134억달러에 매수 합병했으며, 모빌 역시 Superior를 57억달러로 사들였다. 그렇다고 해도 메이저들은 장기적인 문제점들은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석유매장량을 확보해야 생산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한 수익은 보장되지만, 大 메이저로 군림하기 위해서는 채굴한만큼 신규자원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으로 보아 가장 매력적인 방안은 現物市場에서 원유를 구매하는 것이다. 공시판매가격보다 배럴당 1달러 이상 밀돌고 있기 때문에 석유회사들은 이

에 눈을 돌리고 있으나, 이것은 언젠가는 취약성을 노정시킬 것임에 틀림없다. 이란·이라크 전쟁의 확대 같은 정치적 사건이 발발해 석유공급이 중단되면 원유를 확보하기 위해 많은 대가를 치루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엑슨이 現物市場에서 결코 原油를 매입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美国 회사들도 거의 現物市場에 의존하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中東諸국이 보유하고 있는 원유는 그리 매력적인 것이 못된다. 그들의 석유는 現物市場 원유에 비하면 대단히 비싼편인데다 UAE를 제외한 기타 산유국들은 석유회사들이 석유채굴로 부터 이익을 얻도록 충분한 인센티브 및 기회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아직도 경제부문 마진이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GCC 국가들은 이와 같은 헨디캡을 극복하기 위해 마아케팅 부문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 지역은 막대한 석유가 부존되어 있어서 그들 국가들이 제외하는 새로운 거래 형태에 석유회사들은 쉽사리 등을 돌릴 수가 없는 형편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석유회사들은 OPEC와 그 개개 산유국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불리함을 참으면서 그들 原油를 매입하여야 할 것이다. * <계속> <雙龍精油, 주간석유에너지정보>

美国系 메이저의 原油매장량 추이 (單位: 매장량 백만Bbl, 생산량 천B/D)

메이저	연도	1973		1978		1979		1980		1981		1982	
		埋藏量	對前年	埋藏量	對前年	埋藏量	對前年	埋藏量	對前年	埋藏量	對前年	埋藏量	對前年
엑슨	埋藏量	34,167	▲15.2	6,596	▲63.0	6,362	▲3.5	6,805	+7.0	6,237	▲8.3	6,418	+2.9
	生産量	4,746	+1.2	2,422	▲49.0	2,569	+6.1	1,725	▲32.9	1,378	▲20.1	1,418	+2.9
	可採年數 (%)	19.7	-	7.5	-	6.8	-	10.8	-	12.4	-	12.4	-
모빌	埋藏量	NA	-	2,607	▲2.4	2,585	▲0.8	2,718	+5.1	2,887	+6.2	2,714	▲6.0
	生産量	1,666	▲9.8	1,091	▲34.5	1,234	+13.1	885	▲28.3	657	▲25.8	641	▲2.4
	可採年數 (%)	-	-	6.5	-	5.7	-	8.4	-	12.0	-	11.6	-
텍사코	埋藏量	NA	-	3,494	▲11.8	2,600	▲25.6	2,335	▲10.2	2,118	▲9.3	1,943	▲8.3
	生産量	4,286	+13.5	2,132	▲50.3	2,198	+3.1	1,394	▲36.6	1,036	▲25.7	907	▲12.5
	可採年數 (%)	-	-	4.5	-	3.2	-	4.6	-	5.6	-	5.9	-
소칼	埋藏量	NA	-	1,756	▲3.0	1,744	▲0.7	1,724	▲1.1	1,635	▲5.2	1,626	▲0.6
	生産量	NA	-	450	▲4.7	473	+5.1	474	+0.2	478	+0.8	482	+0.8
	可採年數 (%)	-	-	10.7	-	10.1	-	10.0	-	9.4	-	9.2	-
걸프	埋藏量	NA	-	2,020	+5.6	1,943	▲3.8	1,898	▲2.3	1,912	+0.7	1,968	+2.9
	生産量	1,974	▲38.6	658	▲66.7	690	+4.9	644	▲6.7	615	▲4.5	581	▲5.5
	可採年數 (%)	-	-	8.4	-	7.7	-	8.1	-	8.5	-	9.3	-
計	埋藏量	-	-	16,473	▲41.5	15,234	▲7.5	15,480	+1.6	14,789	▲4.5	14,669	▲0.8
	生産量	-	-	6,753	▲2.5	7,164	+6.1	5,122	▲28.5	4,164	▲18.7	4,029	▲3.2
	可採年數 (%)	-	-	6.7	-	5.8	-	8.3	-	9.7	-	10.0	-

(資料) 各社 Annual Report